

Henry George 經濟思想의 背景과 意義： 重農主義 및 古典學派와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

田 剛 秀**

논문 초록 | 본 논문은 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을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그것의 사상사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George는 토지가치의 공적 징수와 거래의 자유를 통합적으로 이해했던 중농주의를 높이 평가한 반면, 토지문제를 외면하고 거래의 자유만을 주장한 고전학파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토지문제가 어떻게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가를 밝힘으로써 고전학파의 왜곡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고전학파의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을 기각하고 차액지대설을 보완함으로써 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을 전면적으로 정정하였다. George가 새롭게 제시한 이론들 속에는 한계생산력설, 외부성 이론, 期待와 投機를 고려한 불황이론 등 현대적 이론들이 胚胎되어 있었다.

핵심주제어: Henry George, 중농주의, 고전학파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

* 본 연구는 1999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서론

Henry George(1839~1897)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다. 1879년에 출간된 그의 대표적인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은 수백만 권이 팔렸고, 그의 사상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은 중국의 쑨원(孫文)과 러시아의 Tolstoy 등 대 사상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Henry George 생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Georgist의 세력이 Marx주의자들의 세력보다 더 컸다고 한다(이정전, 1999, p. 580).

George의 사상은 경제학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는 경제학자가 전문가로서 정착되어가던 시기였던 만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George는 경제학자들에게 전문 경제학자로 대접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Henry George 비판에 열을 올렸고, 그들과 George 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Henry George 비판의 대열에 참가했던 경제학자들 중에는 Alfred Marshall, J. B. Clark, R. T. Ely, E. R. A. Seligman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계생산력설로 유명한 Clark는 George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George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한계생산력설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진보와 빈곤』 출간 이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George의 경제사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학계의 관심 대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George 사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퇴조한 원인을 그것의 내재적 결함에서 찾는다. 급격한 퇴조가 이론적 결함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Gaffney 같은 사람은 George의 사상에 극력 반대하던 지주층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경제학자들이 George의 사상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Georgist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Gaffney, 1994). 그에 따르면 George 사상의 급격한 퇴조는 이와 같은 공격과 작전 앞에 Georgist들이 무릎을 꿇은 결과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George의 사상이 우익도 좌익도 아닌 중도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 협공을 받고 침몰했다고 보기도 한다.¹⁾

1) 김윤상 교수가 대표적이다. George, 김윤상 역(1997, 역자의 글) 참조.

그러나 George의 경제학 '체계'는 실패했지만, 그 핵심은 살아 남아서 근대 사상의 주류 가운데 진입하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Bruchey, 1972).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의 경제학계는 George의 사상에 무관심하지만, 적어도 George가 정규 경제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George의 경제사상을 폄하하던 태도는 사라진 듯하다. 예를 들어 Schumpeter는 "Henry George는 독학의 경제학자이지만 분명히 경제학자이다. 그는 당시의 정식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학 지식과 논리의 대부분을 학교 밖에서 습득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²⁾

한편 현대의 세계경제의 상황이 George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George의 이론 체계 속에는 현대 세계를 괴롭히는 빈곤, 불황,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분명한 논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Feder, 1994; Harrison, 1994). 또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이념적 공백과 경제적 혼란에 고통받고 있는 구사회주의권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서 Georgism이 유력하다고 보기도 한다(Noyes, 1991).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는 George의 사상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김윤상(1991)과 이정전(1999)³⁾에 의해 Henry George 사상이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이재율(1998)에 의해 George의 분배이론이 검토되었다. 전강수(1998)와 전강수·한동근(2000)은 각각 George의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농지 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한 바 있다. 이렇게 George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 경제의 분석에 적용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경제사상사적 관점에서 그것의 배경과 의의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경제사상사적 관점에서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경우 전체 경제사상의 흐름을 조망한 후 George 경제사상을 그 속에 위치시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은 워낙 방대한 것이어서 현재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George가 그 이전의 지배적 경제사상이었던 중농주의와 고전학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또 그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2)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p. 865, Andelson and Dawsey,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1996, p. 215)에서 재인용.

3) 이 책은 1988년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99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다.

한다. 이것은 George 경제사상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George를 추종하진 않건 George를 '최후의 고전학파'라고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다(Dwyer, 1982, p. 303; Feder, 1992, p. 25). George가 고전학파의 분석 도구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고전학파의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George를 이렇게 묘사한다면, 고전학파의 오류로부터 경제학을 구원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George의 노력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eorge가 고전학파 경제학을 전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자연스럽게 George 경제사상의 의의를 밝히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서는 George 경제사상의 핵심 명제를 제시한 후 George가 그같은 경제사상을 갖게 된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III절에서는 George가 중농주의와 고전학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또 그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봄으로써, George와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의 관련성을 밝힌다. IV절에서는 George가 고전학파 경제학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를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의 의의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이 논문의 논의를 요약한다.

II.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이념적·현실적 배경

Henry George의 경제사상의 핵심은 다음의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 ①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이다.
- ② 독점과 토지사유는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경제적 불의이다.
- ③ 이 같은 경제적 불의가 존재하는 한 진보 속의 빈곤, 주기적 불황, 사회와 문명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 ④ 자유거래와 토지가치세(토지단일세)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

George가 이러한 경제사상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 당시 미국의 경제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George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청년기에 신앙을 버리고 방황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⁴⁾ 여기서 그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경제사상의 형성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George의 『진보와 빈곤』은 경제법칙(효율)과 도덕법칙(정의)이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논증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George의 경우 이 객관적 논증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라는 주관적 확신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기독교 가정에서의 성장과정과 기독교 신앙은 이 주관적 확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단 그의 신앙은 개인의 구원만을 지향하고 사회에는 무관심한 신앙이 아니라, 사회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神의 법이 이땅 위에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이었다. 그의 이런 신앙은 19세기 전후에 형성되어, 그 후 미국의 개혁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기독교 개혁가들의 복음적 완전주의(Evangelical perfectionism)에 뿌리를 갖고 있다(Yanosky, 1993, pp. 2~10).

19세기 미국의 개혁 운동은 복음적 완전주의와 함께 생산자주의(producerism)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사실 복음적 완전주의와 생산자주의는 상호 결합하여 미국 개혁 운동의 주된 이념을 형성했다. 미국의 초기 노동운동은 이 생산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산자주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를 생산자와 기생 계층으로 구분하고,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과 노동 생산물을 전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숙련 노동자 중심의 이념이었다(Yanosky, 1993, pp. 10~16). 일찍부터 가게에서, 광산에서, 방앗간에서, 농장에서, 인쇄소, 선상에서 온갖 노동에 종사했던 George로서는 자연스럽게 이 생산자주의를 받아 들였을 것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George의 강한 반대는 바로 이 생산자주의에서 유래한다고 보아도 좋다. 독점과 토지사유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다.

George 경제사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미국 개혁 운동의 이념적 성격 뿐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의 미국 경제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1820년대~60년대까지 미국은 산업혁명을 수행하였다.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는 남북전쟁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인당 산출이 현저하게 증가했고, 1850년 이후에는 증기력이 생산과 운송에 도입됨으로써 미국의 경제구조는 크게 변

4) 조지의 생애를 다룬 글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Barker(1955); George, Jr. (1900); Andelson and Dawsey,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1996, pp. 197~221); Geiger(1993, pp. 19~78); Yanosky(1993) 등을 들 수 있다.

화하였다. 철도 건설은 이러한 변화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철도는 미국의 국내시장을 통일하였고 西漸運動을 자극하였으며, 농지의 확대와 공장제 생산의 파급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공업화의 결과, 1840년만해도 전 세계 공업 생산의 11%에 불과했던 미국의 공업 생산액이 1880년에는 28%로서 영국과 함께, 또 1890년에는 31%로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⁵⁾

이러한 엄청난 진보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실업이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났고 토지가치는 투기적으로 상승했으며 1877년에는 마침내 불황이 초래되었다. George는 이렇게 진보 속에 빈곤이 발생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1858년 이후 신흥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1868년 *Herald*지의 특파원으로 지내던 뉴욕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다. 그 자신 청소년 시절 이후 줄곧 빈곤 가운데 살았던 George는, 극도의 사치와 지독한 빈곤이 공존하는 뉴욕의 대로상에서 진보 속에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명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⁶⁾ 그리고 토지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직후, 그는 그 빈곤의 원인이 바로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⁷⁾ 토지사유제가 진보 속의 빈곤과 주기적 불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해결책을 토지문제에서 찾는 George의 경제사상은 이상과 같은 경제적 현실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III. Henry George와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의 관련성

여기서는 George 이전의 경제학, 즉 중농주의와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George의 경제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George가 자신의 경제사상의 골격을 만들어 낸 것은 경제학을 접하기 전의 일이다. 그래서 경제학 학습

5) 김종현(1987, p. 180의 표 7-5) 참조.

6) 나중에 조지는 이 때의 체험을 어느 아일랜드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어느 날 낮, 대로상에서 어떤 사상, 어떤 비전, 어떤 소명(그 외 무엇으로 표현할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이 전율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 그 시점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잘했던 못했던, 성취했던 못했던 그 맹세에 충실하였습니다.”(Andelson and Dawsey,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1996, pp. 202~203).

7) 19세기 중반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의 토지 집중과 토지투기의 양상에 관해서는 Geiger(1993, pp. 215~226); Young(1916, pp. 27~42) 참조.

이 George의 가설을 확증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자산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Geiger, 1933, p. 200), 중농주의와 고전학과 경제학이 George의 경제사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이들 경제학에 대해 George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경제학에 대한 George의 태도는 그것들이 George에게 미친 영향을 드러내 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중농주의와 고전학과에 대한 George의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경제학이 George의 경제사상에 미친 영향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중농주의

중농주의는 자유거래와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George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George는 진보 속의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가 토지가치의 상승 때문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중농주의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은 다음의 기술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Quesnay 등 중농학파의 학설을 영국 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Quesnay의 학설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완전한 논리를 거쳐 동일한 실천적 결론에 도달하였으며...”(George, 김운상 역, 1997, pp. 410~411)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Quesnay와 그 추종자들을 알았던 Adam Smith보다 그들의 견해에 더 가깝게 접근했다. 그러나 확실히 나의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도출한 것은 없다.”(George, 1898, p. 163)

Geiger(1933)와 Petrella(1984)는 위와 같은 George의 진술을 근거로 중농주의는 George의 경제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Geiger(1933)는 George와 중농주의자들 간의 이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Geiger에 의하면 중농주의자들은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낳는다고 보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George는 토지단일세를 부

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 반면, 중농주의자들은 단지 18세기 프랑스의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또 George의 단일세는 경제지대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반면, 중농주의자들의 단일세는 순생산물의 약 1/3을 징수하고자 했다. 더욱이 George는 토지소유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 반면, 중농주의자들은 토지소유를 옹호하고자 했다. 이 같은 차이점을 보지 않고 정책 대안과 용어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George에게서 중농주의의 영향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George가 자신의 경제사상의 골격을 만드는 단계에서 중농주의 대한 학습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에서 중농주의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George가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빈곤』 출간 이후 George는 중농주의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했으며, 그로부터 적지 않은 격려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유작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George는 중농주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George는 중농주의가 진정한 정치경제학의 중심 원리를 파악했다고 칭찬하는가 하면, 부패한 절대 왕정 가운데서 퍼져 나온 자유의 빛이었다고 격찬하고 있다.

George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중농주의를 칭찬한다. 그 중 하나는 중농주의자들이 경제에는 자연적 질서가 존재하며,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로 그 자연적 질서에 부합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들(중농주의자들: 인용자)은 진정한 정치경제학의 중심 원리를 파악했다. 이것은 ... 사회 유기체의 자연적 성장에서는 그 유기체의 자연적 필요를 자연적으로 충족시키는 기금이 발달한다는 원리이다. 이 기금은 사회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목적, 즉 원래 의도되어 있던 목적을 위해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하게 개인에게 귀속된 것은 일체 빼앗지 않는다. 더욱이 이 기금은 개인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징수하지 않으면 안된다.”(George, 1898, p. 150)

George는 『진보와 빈곤』에서 이미 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여 공공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정의로울 뿐 아니라 효율적임을 주장하였고, 또 그렇게 토지가치세를 징

수할 경우 세입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토지가치세의 세입 충분성에 대해 직관적 설명으로 그칠 뿐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중농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대가 공공 경비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자연법이 명하는 바이며, 사회가 성장할 경우 지대도 공공 경비를 충분히 조달할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George는 중농주의에게서 토지가치세의 자연법적 근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또한 George는 중농주의자가 ‘진정한 자유거래’(true free trade)의 사상을 전개했다고 칭찬한다.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상의 George의 서술 내용을 인용해 보자.

“그들(중농주의자들: 인용자)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무역론자들이었다. Adam Smith를 따른다고 하는 소위 ‘영국의 자유무역론자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그들과 같은 자유무역론자가 되었던 적이 없다. 그들의 실천적 대안이었던 단일세는 자유거래의 원리를 그 논리적 결론—거래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생산에 필수적인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영국에서는 ‘자유방임’(Laissez faire!)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됨으로써 거세되고 왜곡되어 버린 모토의 원작자였다. 원래 그들은 ‘Laissez faire, laissez aller’, 즉 ‘준비를 갖춘 상태의 자유방임’을 이야기했다. … 나는 ‘기회는 균등하게 하고 정실은 없애자!’(A fair field and no favor!)라는 영국의 모토야말로 이 프랑스 말의 정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George, 1898, p. 152~153)

George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거래란 거래의 자유 뿐 아니라 모든 생산에 필수적인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포함하는 생산의 자유를 의미한다. George는 중농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자유거래를 추구했으며, 그들의 토지단일세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George는 이러한 중농주의의 자유거래 사상을 고전학파의 자유거래 사상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무시하는 불구화된 자유거래 사상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거래라는 개념은 『진보와 빈곤』에서는 맹아적인 형태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George가 『진보와 빈곤』 집필 단계까지만 해도 중농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그러나 1886년 출간된

*Protection or Free Trade*에서 George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개진하고 있다.⁸⁾ 여기서 George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무역의 원리를 최초로 명료하게 제시한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George, 1886, p. 290). 이렇게 볼 때 George는 『진보와 빈곤』 집필 후에 중농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자유거래의 사상을 배웠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그의 이론의 두 중심축인 자유무역과 토지가치세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물론 George가 중농주의자들을 칭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중농주의자들의 잘 알려진 실수, 즉 농업만이 순생산물을 낳는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George는 그것이 중농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하면서 그 때문에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던 중농주의의 전체 이론 체계가 잘못된 것처럼 오해되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2. 고전학파

George가 활동하던 시기는 신고전학파가 형성되던 때였다. Marshall, Clark, Seligman 등이 George와 논쟁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George를 신고전학파 경제학(economics)의 시대에 고전학파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부활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Collier, 1979, p. 438), 또 ‘최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George가 고전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

8) “단지 보호를 철폐하는 것 — 단지 보호관세를 수입관세(revenue tariff)로 대체하는 것 — 은 자유무역 원리를 불충분하게 또 약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수입관세는 보호관세보다 약간 완화된 무역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보호의 철폐뿐 아니라 모든 관세와 수출입에 대한 모든 규제(공중 위생과 도덕을 위해 부과되는 것들을 제외하고)의 일소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논리적으로 세관의 철폐에서 머물 수 없다. 그것은 외국 무역뿐 아니라 국내 교역에도 적용되며, 진정한 의미에서는 구매, 판매, 운송 혹은 교환, 그리고 거래와 사업의 이행에 부과되는 모든 국내 조세의 철폐를 요구한다. … 자유무역은 자유 생산을 의미한다. 지금 생산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규제들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진정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의 능동적 요소인 노동이 수동적 요소인 토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토지 독점은 분쇄되어야 하며, 토지를 모든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자연적 요소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George, 1886, pp. 286~289)

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George는 Ricardo의 차액지대설을 받아들여 논의의 기본 도구로 삼았고, 고전학파의 국제무역이론과 화폐이론도 그대로 받아 들였다.

Petrella는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George와 고전학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Petrella(1984)는 George의 경제정책론이 기본적으로 Adam Smith의 도덕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여기서 Petrella는 제도적 환경이 절제와 정의와 같은 도덕적 덕목을 고양시킬 때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성립한다고 본 Smith의 견해를 George가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진보와 빈곤』에서 George가 토지단일세의 효과로서 소득분배의 개선과 함께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Smith 도덕이론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George는 Smith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경제정책론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Petrella는 결론짓고 있다.

Petrella(1988a)와 Petrella(1988b)는 Lakatos의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고전학파와 George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George가 고전학파의 중핵 명제들(hard core propositions)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고전학파의 각종 보호대 이론들(protective belt theories)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Petrella(1988a)는 고전학파의 중핵 명제들을 8가지로 정리한 후,⁹⁾ George는 이 가운데 '경제적 후생은 후생 일반에 대한 좋은 근사치이다'라는 8번째 명제¹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아 들였다고 본다. 고전학파의 8번째 명제 대신에 George가 제시한 새로운 중핵 명제가 바로 토지가치세라는 것이다. Petrella(1988b)는 Petrella(1988a)의 후속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George가 고전학파 중핵 명제의 수정에 맞추어 그 보호대 이론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George는 자신의 수정된 중핵 명제를 위협하지 않는 고전학

9) ① 경제주체는 합리적이다, ② 경제 활동의 기본 동기는 개인의 이기심이다, ③ 많은 재화가 적은 재화보다 더 낫다(최소 희생의 원칙), ④ 시장은 경쟁적 균형과 확정 해(solution)에 의해 특징짓는다, ⑤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기회비용을 갖는다, ⑥ 추상과 단순화를 위한 가정은 경제분석의 타당한 수단이다, ⑦ 완전한 지식과 선한 정부가 주어져 있다면,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은 시장 경쟁에 의해 극대화된다, ⑧ 경제적 후생은 후생 일반(welfare in general)에 대한 좋은 근사치이다(Petrella, 1988a, p. 370).

10) 경제적 후생이 후생 일반에 대한 좋은 근사치라는 말은 시장 경쟁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면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후생 일반도 극대화된다는 의미이다.

파의 무역이론과 화폐이론은 그대로 그의 연구 프로그램 속에 받아들이고, 수정된 중핵 명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고전학과 정정 작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차액지대설과 수확체감의 법칙은 신중하게 취급하여 확장한 반면, 수정된 중핵 명제를 위협하는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은 거부했다는 것이다.

Petrella의 일련의 연구는 George에 대한 고전학파의 영향과 고전학파에 대한 George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든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고전학파의 틀 안에서 George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George가 도덕법칙을 강조한 것을 Smith 도덕이론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George가 고전학파의 중핵 명제들 가운데 대다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명제 한 가지만 거부했다고 보는 것에서 Petrella의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George가 도덕법칙을 강조한 것을 Smith 도덕이론의 영향이라고 보는 Petrella의 견해는 건강부회했다는 느낌을 준다. George가 도덕법칙을 강조한 것과 Smith의 도덕이론의 공통점이라면 인간에게는 도덕적 정서가 있음을 말했다는 것 정도이다. Smith는 이기심이 인간의 지배적 본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후, 인간의 본성에는 과도한 이기심을 억제하는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도덕적 정서, 즉 동감(sympathy)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각 개인이 동감에 의해 조절된 이기심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적 이익은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George의 생각은 이런 Smith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그는 인간이 이기심에 지배되어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¹¹⁾ 또 이기심에 따른 사적 이익의 추구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보지도 않았다.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이익간의 관계 따위는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물론 George도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이기심의 발휘가 아니라 정의, 자유, 평등 등의 도덕법칙을 구현한 제도의 건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¹²⁾

11)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이기심이라고 보는 철학은 단견이다.”(George, 김윤상 역, 1997, p. 447)

12) 이 점과 관련해서 Bruchey(1972, p. 121)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 (George: 인용자)는 어떻게든 개인의 이기심을 사회적 선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Adam Smith의 믿음에 찬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George에게는 너무도 잘 보이는 손이었다. 그것은 소수에게는 진보로, 다수에게는 빈곤을 가져다 줌으로써 사람들의 운명을 극히 불평등하게 갈라 버리는 것이었다. ... 적어도 경쟁이 당시의 땅 관련 규정하에서 행해질 경우, 그

따라서 George가 도덕법칙을 강조한 것은 Smith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중농주의의 자연법 사상이나 미국 개혁 운동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복음적 완전주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George의 古典學派 訂正 問題를 다루는 Petrella의 견해에도 문제가 있다. Petrella는 George가 경제적 효율성 및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¹³⁾ 그에 의하면, George는 고전학파가 교환적 정의를 제대로 취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와 관련되는 중핵 명제들 — 앞서 말한 7개의 명제들 — 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토지가치세를 새로운 중핵 명제로 추가함으로써 분배적 정의를 무시한 고전학파를 정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Petrella는 George가 경제적 효율성과는 무관한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서만 토지가치세를 주장했다고 보는 셈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보완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 및 교환적 정의에 관한 한 George는 고전학파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George는 고전학파의 7개 중핵 명제들만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보았을까? George에게 토지가치세는 단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면, 과연 George는 경제적 효율성 및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을까? 과연 George의 경제사상은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에 분배적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중핵 명제 하나를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해도 좋을까?

아래에서는 『진보와 빈곤』 및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George에 대한 고전학파의 영향과 고전학파에 대한 George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는 그것을 비난했다. ... George는 토지가치가 공동체에 의해 정수될 경우, 보다 높은 문명 생활에의 길을 닦기 위해 경쟁에 의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 때까지는 그는 소위 '단순한 사업 거래'나 '냉정한 이해 득실의 계산' 따위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 그는 엄청나게 높은 지대를 '완전경쟁 지대'(full competition rent)라고 정의했다."

- 13) "즉 George의 생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교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무관하다."; "단일세는 분배적 정의를 증진한다. 그러나 단일세는 교환적 의미에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혹은 공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시장의 결과들을 분배적 의미에서 보다 공평하게 만들 뿐이다." (Petrella, 1988a, pp. 375~376)

George는 결코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적 정의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인정했으며,¹⁴⁾ 토지문제가 분배 문제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세하게 밝혔다. 토지문제가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지 그의 논리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George는 토지사용제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George의 진술을 인용해 보자.

“토지사용제를 인정해야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이다.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적절한 사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하면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내지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용 내지 개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용 내지 개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가 갖는다.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값비싼 토지가 몇 년간 놀게 된다. 영국의 도처에서 토지개량자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개량이 중지되어 있다. 토지가 공공재산이었다면 빌딩과 작물로 뒤덮일 수 있는 넓은 땅이 소유자의 번덕 때문에 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정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도 지금보다 서너 배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소유자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런 땅을 지나 노동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다. 귀중한 땅이 이런 이유로 유향화되어 있는 모습은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다. 토지사용제는 다른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토지의 최선사용이라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합격이다.”(George, 김윤상 역, 1997, pp. 387~388)

둘째로, George는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의 형성과 그에 따른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주기적 불황을 야기하는 주범임을 밝혔다. George의 불황이론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불황으로 인한 생산 중단, 실업, 기업의 도산, 상업의 파탄 등은 모두 효율성과 관계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셋째로, George는 토지가치의 사적 전유는 공공 경비의 본래의 원천을 고갈시켰으며, 그로 인해 소득세, 소비세, 관세, 법인세 등 노력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조세가 경제에 초과부담을 초래하여 효율성

14) George, 김윤상 역(1997, p. xvi, p. 544) 참조. 또한 같은 책 제10권은 이것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을 저해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세 체계는 정부의 기구를 쓸데없이 확대시켜서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넷째로, George가 토지사용제를 진보 속의 빈곤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분배의 악화 또한 각종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노동 의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George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George의 진술을 인용해 보자.

“많은 계층을 빈곤과 악에 빠뜨리는 나쁜 사회제도로 인해 사회가 입는 손실을 금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가공할 금액이 될 것이다. 영국에는 공적인 구호 대상에 백만 명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뉴욕시 하나만 해도 비슷한 목적으로 연간 칠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의 지출액과 자선단체 또는 개인의 지출액은 총 손실의 첫 항목이자 극히 작은 항목에 불과하다. 그 외에 현재의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로 인해 사회가 현 생산수단으로도 얻을 수 있는 총생산량도 다 얻지 못하는 예를 들어 보자. 자선사업으로 인해 노동의 잠재소득이 소멸되고 또 무기력하고 준비성도 없고 게으른 습관이 생김으로써 입는 손실. 빈곤계층의 사망률 특히 유아사망률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사망으로 인한 엄청난 금전적 손실. 빈곤이 심화되면 더욱 늘어나는 유흥주점으로 인한 낭비. 도둑, 창녀, 거지, 부랑자 등 빈곤과 절망에서 생기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인한 손실.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 이밖에도 손실의 예는 수없이 들 수 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생기는 무지와 악, 무기력과 부도덕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공공수입을 낭비하며 무식하고 부패한 공무원에 의해 정부 권한과 기능이 오용되어 더 큰 낭비를 초래한다.”(George, 김윤상 역, 1997, p. 429)

위의 내용을 통해 George가 토지문제를 분배적 정의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George는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적 효율성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Dwyer(1982)는 Henry George에게 있어서 지대의 공적 징수는 분배적 정의 뿐 아니라 시장 효율성의 필요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pp. 300~301), 이것이야말로 George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George가 고전학과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George는 과연 고전학과 경제학이 경제적 효율성과는 무관한 분배적 정의의

측면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적 결함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George에게 있어서 토지사유제는 분배적 정의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따라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문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며 치명적인 것이었다.

고전학파에 대한 George의 전체적인 인상은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책은 자신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전체 주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치경제학을 全面的으로 改鑄(completely recasting)”(George, 1898, p. 203)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George가 Adam Smith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George는 Smith가 자유무역론자였고, 중상주의와 투쟁했으며, 자연적 질서의 체계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중농주의의 뛰어난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George에 의하면, 중상주의 비판까지만 해도 중농주의자들과 보조를 맞추던 Smith는, 중농주의자들이 명백한 이론적 오류(“농업만이 순생산물을 생산한다”)에 빠져 버린 지점과 또 모든 생산을 조세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실천적인 제안의 형태로 옮기는 지점에 와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Smith는 중농주의자들이 희미하게나마 인식했던 정치경제학의 위대한 진리, 즉 사회의 자연적 성장에서는 그 사회의 물질적 필요를 자연적으로 충족시키는 기금이 발달한다는 원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George는 Smith가 정치경제학의 위대한 진리를 잘못된 논리로 설명하고자 했던 중농주의자들의 시도 앞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으로 본다. George의 말을 인용해 보자.

“그(Smith: 인용자)는 ‘노동생산물은 노동에 대한 자연적인 보수 내지는 임금이 된다’는 사실과 토지의 전유가 노동자에게서 그의 자연적인 보수를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주들은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지대 현상을 더 깊이 들여다 본 적은 없다. 그는 주거지이자 모든 물자의 寶庫인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이 전유하는 것이 마치 자연적 질서의 일부인양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듯이, 인간과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와의 관계라는 커다란 주제를 간과해 버린다.”(George, 1898, p. 167)

George가 보기에 Smith는 지대가 불로소득이며 지대의 전유가 임금을 압박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지대에 관해 더 이상 탐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지대의 전유를 허용하는 토지사용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혼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George는 Smith의 이러한 태도를 영국의 지주 계급의 강력한 위치와 결부시켜 이해한다.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 지주들의 권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일개 학자로서 지주 계급의 이해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이며, 따라서 Smith는 실상은 지주 계급에게 향했어야 할 공격의 화살을 상인과 제조업자들에게로 돌려 버렸다는 것이다. George는 이 같은 Smith의 태도를 '신중함'(prudence)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이 같은 '신중한' 태도 덕분에 Smith의 경제학은 지주들의 이해를 위협하는 급진적인 요소(반독점)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에게서 적대감은커녕 오히려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Quesnay가 아니라 Smith가 정치경제학의 아버지로 기억되게 된 것도 이런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eorge에 의하면 Smith의 '성공'은 경제학 전체로 보아서는 왜곡과 '음울한 과학'(dismal science)으로의 전락의 시작이었다. Smith는 공격의 화살을 중상주의 체제에 돌림으로써, 노동 및 노동생산물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하지 않고서도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왜곡된 정치경제학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George는 Smith 이후의 고전학과 경제학은 이렇게 왜곡의 길로 들어선 정치경제학의 노선을 수정하기는커녕 임금기금설, 인구론, 차액지대설 등을 만들어내면서 왜곡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 임금기금설은 임금이 노동자 고용에 사용되는 자본량(임금기금)과 노동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George에 따르면 임금기금설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임금이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Smith가 "노동생산물은 노동에 대한 자연적인 보수 내지 임금이 된다"고 보던 애초의 입장을 버리면서부터이다. 그러면서 Smith는 노동생산물이 임금의 원천이 아니라 고용주의 자본이 임금의 원천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George는 Smith가 애초의 입장을 버린 것이 토지문제를 외면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임금이 자본량과 노동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지주의 지대 전유에 의한 임금의 압박은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다. George가 보기에 고전학파는 자본의 축적을 경제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빈곤의 원인을 노동자 수의 증가에서 찾는 오류를 범했는데, 거기에는 임금기금설이 일조한 바가 크다.

George는 Malthus의 인구론은 고전학과 경제학이 토지문제를 외면해 버린 이후, 빈곤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노력의 대표적인 소산이라고 보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Malthus의 인구론은 인구의 증가 속도는 생존 물자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빈곤과 비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George는 이에 대해 “대중의 생각과 일치하는 망상에 과학의 외관을 부여”(George, 1898, p. 183) 한 터무니없는 학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는 인구론이 임금기금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강화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임금기금설이 빈곤의 원인을 노동자 수의 증가에서 찾는 것과, 인구론이 빈곤의 원인을 인구 증가에서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George의 인구론 비판에는 다분히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면이 있다. George가 보기에 Malthus의 비판주의는 자비로운 창조주의 관념과 맞지 않으며, 사회진화론과의 연결은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Petrella, 1988b, p. 383). 그러나 George가 인구론을 강도 높게 비판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 빈곤의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Malthus의 인구론은 불의한 제도와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과 비참을 인구 증가와 자연의 인색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론은 틀림없이 Smith가 토지문제를 외면하면서부터 빈곤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버린 고전학과 경제학에 탈출구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George가 보기에 고전학과 경제학은 Malthus의 인구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더 심각한 왜곡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고전학과 경제학이 왜곡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부의 생산과 분배의 자연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져 버렸다. 급속한 진보 속에서 극심한 빈곤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 법칙과 신의 섭리 때문이라는 믿음이 포퓰러화되었다(George, 1898, p. 174). 기득권 세력은 자기 주위의 빈곤과 비참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George가 경제학이 ‘음울한 과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George는 Ricardo가 Smith 경제학의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Ricardo의 차액지대설은 토지문제를 외면한 Smith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었다는 것이다. George가 자신의 분배법칙을 전개할 때 의존했던 이론

적 도구도 Ricardo의 차액지대설이었다. 그러나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George는 주장한다. 그것은 지대의 증가를 인구 증가에 따른 최열등지의 이동이나 동일 토지에서의 수확의 체감으로만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Ricardo의 차액지대설은 고전학과 경제학을 왜곡 상태에서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Malthus의 인구론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George가 보기에 Ricardo의 차액지대설은 토지문제를 다루면서도 빈곤의 원인을 인구 증가라는 자연 현상에서 찾으려만드는 잘못된 학설이었다. George 자신은 『진보와 빈곤』에서 분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지대의 증가와 그로 인한 임금 및 이자¹⁵⁾의 하락을 인구 증가, 기술 개선, 토지 투기 등과 관련시켜 설명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구 증가의 영향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도 최열등지의 이동이나 수확 체감의 법칙뿐만 아니라 소위 '집적의 효과'¹⁶⁾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구 증가와 자연의 인색함에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Malthus와 Ricardo의 오류를 벗어나고 있다.

요컨대 고전학과 경제학은 중농주의가 회미하게나마 발견한 경제학의 위대한 진리들 — 진정한 자유거래는 거래의 자유 뿐 아니라 생산의 자유와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과, 사회의 자연적 성장에서는 그 사회의 물질적 필요를 자연적으로 충족시키는 기금(지대)이 발달한다는 원리 — 을 상당 부분 외면하고 거래와 무역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피상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왜곡의 길로 들어섰다고 Henry George는 주장하였다. George는 결코 이 왜곡의 영향이 Petrella가 주장한 것처럼 분배 정의를 무시하는 부분적인 결함을 낳는 데 그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George는 자신의 과제를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을 완전히 改鑄하는 것으로 잡게 되었던 것이다. George가 보기에 임금기금설이나 인구론, 차액지대설 등은 왜곡된 정치경제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왜곡을 도리어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15) George에게 있어서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를 통칭하는 말이다.

16) George는 인구가 증가하면 협동과 교환의 힘이 커져서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그 생산성 향상은 특정 토지에 국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집적의 효과라 부른다(George, 김윤상 역, 1997, pp. 224~232).

IV.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의의

여기서는 George가 고전학과 경제학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를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의 의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1. 임금기금설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의 제안

앞에서 살펴 본 대로 George는 임금기금설이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의 왜곡을 심화시킨 잘못된 임금이론이라고 보았다. George의 비판은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고 하는 임금기금설의 전제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George는 자가노동의 경우, 현물임금을 받는 경우, 임금 계산은 현물로 하되 지불은 화폐로 하는 경우, 보통의 화폐임금의 경우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임금은 미리 축적된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과 생산의 결과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실제로 임금기금설은 George가 비판한 내용과 유사한 근거에 의해 기각되어 버렸다(Collier, 1979, p. 439). 현대 주류 경제학의 임금이론인 한계생산력설은 이와 같이 임금이 과거에 축적된 자본이 아니라 현재의 노동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없이는 성립 불가능한 것이었다(이재율, 1998, p. 316).

George는 임금기금설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임금이론을 제시하였다.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 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George, 김윤상 역, 1997, p. 203)는 것이 그것이다. George는 토지와 노동만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임금은 한계지에서의 노동 생산물에 의해 바로 결정되고, 토지, 노동, 자본이 다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우선 ‘임금 + 이자’가 한계지에서의 노동 생산물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과 자본의 상호 전환에 의해 성립되는 균형에 의해 그것이 임금과 이자로 나뉘어진다고 보았다(이재율, 1998, p. 316). 한계생산력설을 창시한 Clark는 George의 임금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생산물을 다른 요소의 생산물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¹⁷⁾ 결국 George는 임금기금설이라는 잘못된 임금이론을 경제학에서 추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

17) Collier, 1979, p. 439; 이재율, 1998, p. 316.

라, 임금의 원천은 현재의 노동 생산물이며, 그 수준은 한계지의 노동 생산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새로운 임금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한계생산력설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⁸⁾

2. 분배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불황이론의 제시

George는 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이 임금은 임금기금설, 지대는 차액지대설, 이자는 자본의 수요 공급(혹은 이윤은 임금과의 상반관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그는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밖에 없고 생산물은 모두 이 3요소의 소득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은 이 자명한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 전제 조건에 따를 경우 지대법칙을 인정하면 나머지 두 법칙, 즉 임금법칙과 이자법칙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George의 결론은 각 소득을 설명하는 법칙들은 상호조화성과 연관성을 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학파의 소득 법칙들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George가 여기서 분배이론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George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초기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한계생산력설을 주장하면서 생산물이 한계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는 각 소득으로 완전 배분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이것은 아마도 George의 지적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George는 지대법칙과 '임금 + 이자'의 법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대는 각 토지의 생산량과 한계지의 생산량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임금 + 이자'는 한계지의 생산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임금 + 이자' 부분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상호 전환에 의해 성립하는 균형에 의해 임금과 이자로 나뉘어진다. '임금 + 이자'가 임금과 이자로 나뉘어지는 것에 관한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이재율, 1998, pp. 316~317), 어쨌든 이렇게 하

18) Clark가 George의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한계생산력설을 창안했다고 해서 그가 George의 이론에 찬성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는 오히려 George 비판의 선봉에 섰으며, 미국의 대학들에서 Georgist 학자들을 쫓아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Gaffney (1994) 참조.

여 George는 각 소득 법칙들 간의 상호조화성과 연관성을 확보한 분배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George 분배이론의 白眉는 물질적 진보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진보와 빈곤』 제4권이다. 여기서는 물질적 진보를 대표하는 요인을 인구 증가, 기술 개선을 포함하는 각종 사회적 개선,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로 잡고 그 요인들이 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George의 결론은 어떤 경우에도 지대의 비중이 올라가고 임금과 이자의 비중이 하락하는 상대적 빈곤이 발생하며, 세 가지가 합쳐질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 뿐 아니라 임금과 이자의 절대적 수준까지 하락하는 절대적 빈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eorge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19) George의 분배이론 중 고전학파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첫째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구 증가의 효과와 관련하여 고전학파는 그것이 한계지를 확장한다는 사실만 고려한 반면, George는 그것이 사실상 기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집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 간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George의 주장대로 기존 토지에 국지적으로 집적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지대의 비중은 한계지의 확장이 없이도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George는 지대 비중의 상승을 단지 한계지 생산성의 하락으로만 설명하는 고전학파의 단순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전망과 관련하여, 고전학파(특히 Ricardo)는 인구 증가가 한계지를 확장하여 지대를 상승시키고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또 이윤을 0으로 떨어뜨리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를 예상하는 반면, George는 정체상태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적 변동을 반복하는 경제를 예상하고 있다(Collier, 1979, p. 439). 이 점에서 George는 고전학파의 지나친 비관주의를 극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Petrella, 1988b, p. 387).

셋째로, George는 토지가치에 대한 기대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분석 내용을 이용하여 기대를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 파악하는 획기적인 불황 이론을 제시했다. 케인즈 이전에 불황의 기본 원인으로서는 기대에 주목했던 학자는

19) 자세한 내용은 Collier(1979), 이재율(1998) 참조.

George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wyer, 1982, p. 303).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토지투기를 유발하고 그것이 생산을 압박하여 불황이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George의 이론은 계속 확대·발전하여 최근에는 Georgist들이 가장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론의 하나가 되었다.²⁰⁾ 또한 George는 토지가치에 대한 기대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토지의 투기적 보유로 인한 유희화 및 저밀도 이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괴롭히는 도심의 슬럼화 현상과 스프롤(sprawl)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3. 외부성 개념의 제기

Dwyer(1982)는 George를 “외부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다고 평가한다(Dwyer, 1982, p. 298). George는 외부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대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George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지대를 주로 농업과의 관련에서만 파악하여 외부성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George는 현대 도시 경제에서 지대는 토지의 자연적 능력보다는 위치와 연결된 외부성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에서 말한 집적의 효과가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 Marshall은 외부경제를 소개할 때 그것을 위치 지대와 연결시키고, 토지의 공공 가치라고 묘사하며, 사회는 지대 과세를 통해 그 공공가치를 초과부담 없이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은 George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Dwyer, 1982, p. 299).

Dwyer는 George의 외부성에 대한 처방을 “놀랍도록 현대적”이라고 평가한다. 순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는 조세 부과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외부성의 최적 수준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George의 처방은 환경 오염에 의한 외부불경제를 배출 부과금이나 환경세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 환경이론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Petrella,

20) Harrison(1983, 1998)과 전강수·한동근(2000)은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에서 토지투기가 불황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Georgist의 불황이론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연구로서는 Foldvary(1997) 참조.

1988a, p. 369). 현대 환경이론은 공기의 오염이 다른 사람들을 깨끗한 공기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는 외부불경제를 낳는다고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 사용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오염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독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토지의 독점은 다른 사람들을 토지 사용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토지가치세이다. 원래 경제학에서 토지란 좁은 의미의 토지만이 아니라 물과 공기 등 전체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토지가치세의 원리와 환경 대책의 원리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George의 이론이 현대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연유로 현대의 Georgist들 중에는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²¹⁾

4. 토지가치세 : 효율과 형평의 조화

경제법칙(효율)과 도덕법칙(정의 혹은 형평)이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근본 철학이었다. George의 경제분석은 모든 사람이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해 공평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도덕법칙이 무시될 경우 어떤 경제적 비효율(분배의 불평등은 물론이고)이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George는 자신의 대안 - 토지가치세 - 이 도덕법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Locke의 재산권 이론을 사용하여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과는 달리 토지는 사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 생산물의 경우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George가 보기에 토지가치세는 토지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토지가치세는 이것 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불의를 해결한다. George는 소득세, 소비세,

21) Georgist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는 Yandle and Barnett(1974); Richards(1991); Andelson(1991); Beck(1999) 등이 있다.

각종 기업 관련 조세 등 노력소득에 대한 과세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노동 생산물을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George는 토지가치세 = 토지단일세가 이러한 불의를 타파하여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사회의 것은 사회로' 돌리는 정의의 도덕법칙을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George에 따르면 이같이 도덕법칙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토지가치세는 각종의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하는 놀라운 효과를 갖는다. George가 말하는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토지가치세는 마치 근면과 성실에 대한 벌금처럼 부과되던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각종 조세를 철폐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며 생산 의욕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한 그것은 토지 독점과 토지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적 이용 기회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토지가치세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지대의 사적 전유와 토지 투기를 봉쇄함으로써 임금과 이자의 저하를 막고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토지가치세 수입은 공공지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더 한층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의 제고는 사회 도처에서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 능률을 높임으로써 효율성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토지가치세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각종 조세 관련 기능을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악을 감소시켜 관련 정부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정부를 간소화시킨다. 이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Georgist들은 여기에다 한 가지 중요한 효과를 추가한다. 즉 토지가치세는 토지의 유희화를 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환경 파괴는 토지 투기로 인해 인위적으로 한계지가 확장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Andelson and Dawsey, 기독교경제학연구회 역, 1996, pp. 146~148),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을 저지하는 효과를 갖는 토지가치세는 그것들을 방지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현대의 Georgist들은 토지가치세의 원리를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가치세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토지가치세의

22) 자세한 것은 George, 김윤상 역(1997, 제9권) 참조.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무성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룰 여유는 없다. 다만, 그 중에는 토지가치세로는 세입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다든지, 토지가치세가 토지 이용의 異時的 效率性を 저해한다든지, 보상 없는 토지가치세 실시는 부당하다든지 하는 경청할 만한 비판도 있지만, George의 토지가치세는 토지 몰수나 지대 폐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해석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효율과 형평을 함께 충족시키는 토지가치세 정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체제 대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의 Georgist들은 자본주의는 토지사용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분배의 불평등, 주기적 불황, 실업, 환경 파괴 등의 경제 문제를 겪어 왔고, 사회주의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 요소의 이용을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맡김으로써 극도의 비효율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한다. Georgist들은 George의 진정한 자유거래의 사상, 즉 자유시장과 토지가치세를 실시하면 자본주의의 장점인 효율과 사회주의의 장점인 평등을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가 실현된 경제체제야말로 진정한 제 3의 경제체제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제3의 체제로 부각되었던 복지국가 체제나 시장 사회주의 등은 자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파 Georgist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Fred Harrison, Mason Gaffney, Kris Feder, Nicolaus Tideman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George의 경제사상을 신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Georgist 패러다임이 자본주의라는 正과 사회주의라는 反을 지양하는 습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Georgist, 그 경제학을 Geonomics 혹은 Geo-classical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특히 Georgist 패러다임이 이념적 공백 상태에 빠져있는 구 사회주의권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Georgist들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 전파 활동, 자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eorgist로서 이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George가 토지 공유라든지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이들은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의 철폐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이 온건파 Georgist들²³⁾은 토지가치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부족할 경우 다른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Pennsylvania 주에서 토지세율은 올리고 건물세율은 낮추는 복수세율(two-rate) 재산세제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²⁴⁾ 이들은 극히 현실적이고 온건한,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George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V. 결론

이상에서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배경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특히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와의 관련 속에서 George 경제사상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George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해답은 토지가치의 상승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 개혁 운동의 이념과 산업혁명 이후 미국 경제의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현실의 체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농주의로부터 George는 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과 진정한 자유거래는 거래의 자유뿐 아니라 생산의 자유와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중농주의의 토지단일세론이 비록 이론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경제학의 위대한 진리를 파악했다고 평가한다.

George는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농주의가 희미하게나마 발견한 경제학의 위대한 진리들을 상당 부분 외면하고 거래와 무역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피상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왜곡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George가 보기에 이 왜

23) Steven Cord가 대표적이다. 그의 견해에 관해서는 Cord (1984) 참조.

24) Pennsylvania 주의 복수세율 재산세제의 역사는 19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14년 Pittsburgh와 Scranton 두 도시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토지세와 건물세간의 차이를 증가시켜 토지세율이 건물세율의 2배가 되도록 하는 복수세율 재산세제를 도입하였다. Pennsylvania 주는 1951년 기초자치단체가 복수세율 재산세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후 이 주의 여러 도시들이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더욱이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토지세율과 건물세율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제도는 건축활동을 촉진하여 쇠퇴하고 있던 도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억제하여 주변 농지와 녹지를 보전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온건파 Georgist들은 이러한 재산세제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delson (1997, pp. 122~129) 및 Smith and Nelson (1998) 참조.

곡의 영향은 단지 분배 정의를 무시하는 부분적인 결합을 낳는 정도를 넘어서는,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George는 자신의 과제를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을 완전히 改鑄하는 것으로 잡게 되었던 것이다. George가 보기에 임금기금설이나 인구론, 차액지대설 등은 왜곡된 정치경제학의 결합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왜곡을 도리어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George는 고전학과의 임금기금설을 전면 부정하고 임금이 현재의 노동 생산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현대 임금이론 탄생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고전학과 분배이론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각 소득 범주의 결정 메커니즘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분배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분배이론을 전면 재조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구증가, 기술개선, 기대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정제상태를 전망한 고전학과의 지나친 비관주의를 극복하는가 하면, 기대와 그로 인한 투기가 불황의 원인이 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불황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George는 그 시절에 벌써 외부성의 개념과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동시적 실현을 믿고 있던 George에게 토지가치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효율과 형평의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George의 토지가치세는 오늘날 Georgist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正)와 사회주의의(反)를 모두 지양하는 — 즉 양자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단점을 제거한 — 제3의 경제체제(合)를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현대의 Georgist들 중에는 이렇게 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토지세율을 높이고 건물세율을 낮추는 재산세제 개혁을 통하여 George의 이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온건파들도 있다. George의 경제사상은 Georgist 패러다임의 추구라는 형태로, 또는 지방 정부 차원의 재산세제 개혁이라는 극히 현실적인 형태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1.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1.
2. 김종현, 「근대경제사」, 경문사, 1987.
3. 이재율,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 연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2호, 1998, pp. 301~327.
4. 이정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9.
5. 전강수, "한국 농지개혁의 재평가: 헨리 조지 이론에 기초하여," 오두환 편저, 「공업화의 제 유형」 (II), 경문사, 1996, pp. 213~234.
6. ———·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2000, pp. 125~153.
7. Andelson, Robert V. (ed.), *Commons without Tragedy*, Shephard-Walwyn, 1991.
8. ———, *Land Value Taxation Around the World*, 2nd Edition,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7.
9. ——— and James M. Dawsey, *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Obris Books, 1992, 기독교경제학회회 역,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 CUP, 1996.
10. Barker, Charles A., *Henry George*,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11. Beck, Hanno T., "Land-Value Taxation and Ecological-Tax Reform," Kenneth C. Wenzer(ed.), *Land Value Taxation*, Shephard-Walwyn, 1999, pp. 205~223.
12. Bruchey, Stuart, "The Twice 'Forgotten' Man: Henry Georg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1, No. 2, 1972; reprinted in Lissner, 1991, pp. 104~129.
13. Collier, Charles, "Henry George's System of Political Econom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1, No. 1, 1979; reprinted in Lissner, 1991, pp. 413~442.
14. Cord, Steven B., *Henry George: Dreamer or Realist?*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4.
15. Dwyer, Terence M., "Henry George's Thought in Relation to Modern Economic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1, No. 4, 1982; reprinted in Lissner, 1991, pp. 296~306.
16. Feder, Kris, "Issues in the Theory of Land Value Taxation," Ph. 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1992.
17. ———, "Public Finance and the Co-operative Society," Michael Hudson et. al. (eds.), *A Philosophy for a Fair Society*, Shephard-Walwyn., 1994, pp. 123~162.
18. Foldvary, Fred E., "The Business Cycle: A Georgist-Austrian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56, No. 4, 1997, pp. 521~541.
19. Gaffney, Mason, "Neo-classical Economics as a Stratagem against Henry George," Mason Gaffney and Fred Harrison(eds.), *The Corruption of Economics*, Shephard-Walwyn, 1994, pp. 29~163.
20. Geiger, George R., *The Philosophy of Henry George*, The Macmillan Company, 1933.
21. ———, "The Forgotten Man: Henry George," *The Antioch Review*, Vol. 1, No. 3, 1941;

- reprinted in Lissner, 1991, pp.87~103.
22. George, Henry,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1(1879),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23. ———, *Protection or Free Trade*,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2(1886).
24. ———,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2(1898).
25. George, Jr., Henry, *The Life of Henry George*,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60.
26. Harrison, Fred, *The Power in the Land*, Universe Books, 1983.
27. ———, "The Georgist Paradigm," Mason Gaffney and Fred Harrison(eds.), *The Corruption of Economics*, Shephard-Walwyn, 1994, pp.165~235.
28. ———(ed.), *The Losses of Nations*, Othila Press Ltd., 1998.
29. Lissner, Will and Dorothy B. Lissner(eds.), *George and the Scholars*,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91.
30. Noyes, Richard(ed.), *Now the Synthesis*, Shephard-Walwyn, 1991.
31. Petrella, Frank, "Henry George's Theory of State's Agenda,"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43, No.3, 1984; reprinted in Lissner, 1991, pp.344~361.
32. ———, "Henry George and the Classical Scientific Research Program: The Economics of Republican Millennialism,"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47, No.2, 1988a; reprinted in Lissner, 1991, pp.362~379.
33. ———, "Henry George and the Classical Scientific Research Program: George's Modification of It and His Real Significance for Future Generation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47, No.3, 1988b; reprinted in Lissner, 1991, pp.380~393.
34. Richards, David, "The Greens and the Tax on Rent," Noyes, 1991, pp.155~173.
35. Smith, Jeffery J. and Kris Nelson, "Giving Life to the Property Tax Shift(PTS)," <http://www.progress.org/geonomy/rppaper.html>, 1998.
36. Yandle, Bruce and Andy H. Barnett, "Henry George,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Quality: Classical Answers to 'New'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33, No.4, 1974; reprinted in Lissner, 1991, pp.268~275.
37. Yanosky, Ronald W., "Seeing the Cat: Henry George and the Rise of the Single Tax Movement, 1879~189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3.
38. Young, Arthur N., *The Single Tax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16.